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워런 카운티 지역 암 연구 지역에서 나타난 더 높은 암 발생률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흡연, 음주, 영양 부족 및 에이즈 바이러스(HPV) 감염이 워런 카운티의 높은 암 발생률에 기여했을 가능성 발견

지역 공공 보건 파트너가 건강한 생활 습관들에 대한 개입 대책 마련

지역 암 예방 기금 지원을 위해 최대 675,000 달러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조금 기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스트 워런 카운티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 암 발생률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연구에 따르면 영양 부족, 흡연 및 음주가 이 지역의 특정 암 발생률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은 건강하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흡연 및 음주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역 공중 보건 파트너와 협력하여 암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핵심 요소인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할 수 있는 개입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에는 지역 암 예방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 동안 연간 225,000 달러를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총 675,000달러의 지역 사회 암 예방 대책(Community Cancer Prevention in Action) 보조금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암을 퇴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와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부(DOH)가 농촌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워런 카운티 지역의 높은 암 발생률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역 사회 암 예방 대책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여러 지역 사회에서 지역 암 예방 및 위험 해소 개입을 지원하는 주 보건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글렌스 폴스 병원(Glens Falls Hospital)과 워런 카운티 보건 서비스(Warren County Health Services)는 애디론덱 농촌 보건 네트워크(Adirondack Rural Health Network)와

같은 다른 공중 보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농촌 지역사회 암 발생 방지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 대책을 마련하는 지역사회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연구자들이 워런 카운티를 조사한 이유는 2011-2015 데이터를 바탕으로 뉴욕주에서 모든 암의 총 수치가 이 카운티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구는 그 범위를 구강, 대장, 후두, 폐, 뇌 및 기타 신경계, 갑상선, 식도, 피부 흑색 종 및 백혈병 등 9 가지 유형의 암 발생 케이스로 좁혔습니다. 현재 및 과거의 흡연, 영양 부족, 음주, 에이즈 바이러스(HPV) 감염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연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은 남성 2명 중 1명과 여성 3명 중 1명이 진단받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뉴욕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암 위험을 줄이고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줄 것입니다."

Dan Stec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치명적인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할 방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더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자금 지원은 더욱 건강한 생활 방식 선택을 하고 주민의 암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런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의 Ronald Conov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삶을 변화시키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Cuomo 주지사의 암 연구 이니셔티브(Cancer Research Initiative) 덕분에 이제 우리는 암 발생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물론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yan Moore 워런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워런 카운티 주민들에게 발표해주신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헌신적인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지역 암 예방 지원을 위해 주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Daniel Hall 글렌스 폴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든 동료든 우리 가족이든, 암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암 연구 이니셔티브(Cancer Research Initiative)의 일환으로 암 예방 및 개입 대책을 마련해주신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관계자와 연구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질의 응답하는 회의가 11월 7일 저녁 7시 워런 카운티의 다음 장소에서 열립니다.

Adirondack Hall, Northwest Bay Conference Center
SUNY Adirondack Community College
640 Bay Road, Queensbury, NY

워런 카운티 연구 지역 외에도 서퍽 카운티의 센터리치, 파밍빌 및 셀덴 지역과 스테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카운티) 및 이스트 버펄로/웨스트 치크토와가(이리 카운티)에서 암 발병률 증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주 특정 지역의 암 발생률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 전역의 암 예방 및 검진 노력을 더 잘 알리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잠재적인 동향을 조사하면 보건부에서 어떤 암 예방 중재를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진단 및 치료 서비스가 환자와 자원을 연결할 때 가장 도움이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에 따라 뉴욕에서 진단되거나 치료되는 모든 암 사례는 해당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뉴욕주 암 레지스트리(New York State Cancer Registry)에 보고합니다. 뉴욕주 암 레지스트리는 1940년에 미국 최초의 암 레지스트리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CDC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우수한 레지스트리(Registry of Excellence)로 지정되고, 레지스트리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인정받아 북미 센트럴 암 레지스트리 협회(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entral Cancer Registries)의 골드 인증(Gold Certification)을 받는 등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 암 연구는 암 레지스트리에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다른 출처의 데이터로 보강되었습니다.

지역의 인구 통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흡연 등의 행동 및 생활 방식 요인, 그리고 각 지역의 직업 및 산업 역사가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부(DOH)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협의하여 환경 요인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어떤 연구 영역에서도 암 발병률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비정상적인 환경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